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4호(구394호) 2008. 9. 21.(격주간)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이사야 9:3).



이재록 목사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독후감 공모 감사예배 및 시상식

이재록 목사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크리스찬신문사) 독후감 공모 감사예배 및 시상식이 9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있었다.

크리스찬신문사 임종권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한국기독교언론협회 김형원 회장의 대표기도, 할렐루야 선교단의 특송, 예은교회 임헌준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2부 시상식에는 정구영 목사(전 서울여대 총장)와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강준오 목사의 축사에 이어 시상이 있었는데, 대상은 김흔 자매(이화여대 교육학과 대학원 재학 중)가 수상했다.

『나의 삶 나의 신앙』은 교보문고 종교부 문 베스트셀러로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우림북: 02-837-7632)



「2008년 부목사, 장로, 권사 임직예배」 드려

‘만민’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힘을 더할 새 임직자 90명이 탄생한다.

2008년 부목사, 장로, 권사 임직예배가 9월 21일 저녁예배 때 본당에서 은혜 가운데 치러진다. 임직자는 부목사 3명, 장로 23명, 시무권사 43명, 명예권사 15명, 협동권사 6명, 모두 90명으로 지난해 45명보다 2배 늘어난 인원이다.

이날 예배는 모두 5부로 나뉘어, 1부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온전한 충성(계 2: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부 부목사 취임, 3부 장로 장립, 4부 시무권사 취임 및 명예권사 추대에 이어, 5부에서는

이정호 장로(예성연합 부총회장)의 권면사, 김병종 교수(서울대 미대)의 축사, 정구영 목사(전 서울여대 총장)의 답사, 할렐루야 선교단의 축가, 예물 증정, 취임 패 수여, 축도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만민국제신학교 총장이며 이날 목사로 임직되는 정구영 목사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세계를 이뤄나가는 만민중앙교회의 부목사가 된 데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관련기사 4면).

제8회 말씀퀴즈대회 본선 열려

‘제8회 말씀퀴즈대회’(남선교회 총연합회 주최) 본선이 9월 7일 주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열렸다.

본선에는 2차 예선에서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을 획득한 본교회 30명과 지교회 16명, 총 46명이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상에는 박홍용 목사(대전만민교회)가 수상했으며, 황금란 지도교사(빛과 소금선교회)와 이미선 집사(가나안선교회)가 금상을, 박현보 목사(마산만민성결교회)가 은상을, 이재석 집사(남선교회)가 동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박홍용 목사는 “4회 때 은상을, 6회 때 금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8회 때에는 대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칼럼 Column

등분을 밝혀야

인생에서 노력 없이 성공하는 예는 드뭅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공부해야 하고, 사업가도 열심히 뛰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다 같이 등을 들고 신앙을 기다렸지만 등을 밝힐 기름 준비를

잘한 다섯 처녀만이 신앙을 맞이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요(마태복음 25장). 이는 단지 ‘크리스천’이란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 늘 살펴야겠습니다.

글 • 이재록 목사 한겨레신문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3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본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 - 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온전한 충성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 주어지면 가을 들판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히듯 각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속이 차고 무르익어야 하듯이 직분을 받으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최상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대로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하면 금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생명도 아끼지 않는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5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으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려면 자신의 의지나 개인적 만족, 안락한 삶 등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때로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심히 애통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애매히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 다. 그런데도 골로새서 1:24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며 영혼을 위해 받는 괴로움까지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일서 4:18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 또한 당회장으로서 생명을 내놓을 만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크나큰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이기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직분자라면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신 주님의 은혜,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성령님의 은혜 등 자신만이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간 경작의 섭리를 바로 알아 깨어 있는 신앙으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천국,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 이르는 길을 밝히 알려 주셨으며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러한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가득 채우는 만큼 생명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고 충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육의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충성 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직분을 받으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따라 처음의 마음과 고백이 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도 누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한 조건에서 더 앞서가는 사람을 보거나 직분자로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낙심도 하지요. 어떤 일이든지 ‘예’, ‘아멘’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 앞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에게 유익한 일에만 열심내지요.

그러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틈이 생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한다 하지만 열매가 나지 않음으로 답답해하지요. 더 나아가 직분을 맡은 것을 후회하고 사명을 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충성한다 했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통해 인정 받으려는 마음,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사명으로 인해 오히려 애매히 고난받고 때로는 낮은 데에 처한다 하더라도 감사해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와 같이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해도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데, 이는 바로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중심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내 유익에 따라 바뀌는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낙심하거나 열정이 식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어찌하든 그런 마음을 벗어나 버리고 변화하는 것이 참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드린 고백이 진실 자체가 되도록 날마다 노력해 나간다면 더 쉽게, 더 빨리 영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향이 더 아름답게 승화되고 열매도 더 풍성히 맺히지요. 순수한 정금은 불로 연단함으로써 만들어지므로 모든 연단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진실 자체인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3. 중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

을 다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중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해도 중심의 기도가 없으면 행함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 영의 일꾼으로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중심의 기도를 날마다 쌓아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바로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이뤄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숨김없이 내려놓을 수 있지요. 이럴 때야야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세상의 지식이나 달란트, 물질 등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서 오며, 중심의 기도를 하루하루 쌓아갈 때에 사랑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이루며 결국 큰 능력의 일꾼으로 나옵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사명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12에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며, 또한 나를 능하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충성으로 심판의 날에 “귀한 사명을 주셔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나다.” 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마지막 때에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기이하고 희한한 일은 성경으로 조명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표증된 사람들을 세워(행 3:22) 뜻을 전하고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 계심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증거한 뒤 표적을 베푸심으로 이것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틀림 없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죄악이 가득 차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요 4:48). 현 세대는 크리스천조차도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성경상의 일일 뿐이라 말한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가능할까'라고 생각한 틀을 깨는 만큼 믿음에 따라 갖가지 기이하고 희한한 일로 역사하신다. <편집자>

최상품의 '레드 메론', 비결은 무안 단물

조혜형 집사 (8교구, 2-3여선교회)

충남 부여에서 메론 농사를 하는 형님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지만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당회장님 책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안 단물을 사용한 레드 메론(우측)

작년부터 레드 메론(속이 붉은 메론) 농사를 시작한 형님은 백화점과 납품계약을 맺었는데, 크기가 백화점 납품 규격에 미달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는수없이 일반 소매상에 납품해 큰 손해를 보았지요.

저는 무안 단물(출 15: 25)로 고풍작을 이룬 성도의 간증을 하며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권능을 인정해 온 형님은 올해 메론 농사에 처음부터 무안 단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안 단물이 부족해 다섯 동 하우스 중 두 동에만 사용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안 단물을 사용한 두 동의 수확물은 크고 맛도 매우 단 최상품이지만, 세 동의 수확물은 그 잎부터 다르고 크기도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GCN 방송을 통한 시공 초월의 역사

아로꿈 성도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저는 인도 첸나이 시 빌리바감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플라스틱 가게를 운영합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을 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해보았지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늘 심한 통증으로 괴로웠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이 참으로 막막했지요.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지난 8월 17일, GCN 방송을 통해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매우 아팠습니다. 설교 중에 당회장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가게 문을 닫고 주일성수를 한다'는 말씀에 깨우침이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지요.

설교가 끝난 뒤 당회장님 환자기도를 받을 때에 그토록 심했던 배의 통증이 사라져 평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변을 보는데 약 0.6 센티미터 크기의 돌이 특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을 알 수 없던 통증이 바로 요로결석 때문임을 알았고, 지금은 매우 건강합니다.



아로꿈 성도(우측) 가족 몸에서 나온 결석

죽은 시신경이 되살아나

홍경남 집사 (27교구, 3-4여선교회)

오른쪽 눈이 거의 빛조차 보이지 않아 올해 1월 3일, 영등포 김안과에서 종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눈 시신경이 거의 죽은 상태로 망막이 떨어져 있었지요. 이는 망막박리로 시신경층이 필름 오그라들듯 떨어져 나와 심해지면 안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방치하면 눈이 움푹 꺼져 보기에 흉하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수술했지만 오히려 시야가 떨리면서 시리고 아른거려 눈을 뜰 수 없었지요.

〈우측 눈 시력검사 결과〉

거역 & 기록역	양 눈 () 감상	외대 기록지
	고혈압 () 알라	
	구축력 및 허상	
	30	
현재안검	R LPT	원 -1.0
안테렌즈	L 1.0	OS -1.0
		AS 1.6
굴절안사	R -1.50 + 1.00 X 90	
굴절안사	L -1.50 + 1.00 X 90	
안화 & 주기		add (43.00)
		(12.50)
		-MR 488 ty

〈치료받기 전〉 〈치료받은 후〉
 거의 빛조차 교정 시력으로
 보이지 않음 1.0까지 보임

그런데 3월, 이미영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떨리는 것이 사라지고 사물의 윤곽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야 2부에 열린 은사 집회 때에는 당회장님이 단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뒤, 시력이 좋아져 성경의 글씨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나타난 손수건 기도의 위력

파벨 바르코 목사 (힐부 하이츠 러시아인 교회)



미국의 텍사스와 테네시에서 러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저는 이재록 박사님이 기도한 손수건(행 19:11, 12)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알렉산더 슈마니안(22세)은 18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에게 권능의 손수건을 설명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는 다리에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며, 스스로 일어나 조금씩 움직였지요. 의사는 기적이라며 다리의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위종양으로 고통받던 류드밀라 성도는 수술 예정일 이틀 전에 찾아와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사라져 수술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류바 자매의 남자 친구는 갑상선암을 앓아 목에 주먹 크기만한 종양이 손에 잡혔는데,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이 외에도 손수건 기도를 통해 치료된 간증은 매우 많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51)805-1363,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1-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김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오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덕목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 ☎031)840-2906, 019-251-3149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2008 임직자예배,

하늘의 귀한 직분받아

대통령과 주일학교 반사 중 무엇이 더 귀한 직분일까? 한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는 당연히 귀하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 없이 주일학교 반사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학교 반사는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인정받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세상 직분과 명예, 상급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결국 다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직분은 영원한 상급과 영광됨을 그는 안 것이다.

9월 21일,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는 90명의 임직자가 새롭게 탄생된다. 그 영광스러운 얼굴들 가운데 인기 댄스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의 모친으로 팬들의 영적 관리자가 되어 온 장덕분 권사와 조계사 시위 진압 도중 15미터 높이 사다리차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이웃 사랑과 전도에 힘써 온 전중익 장로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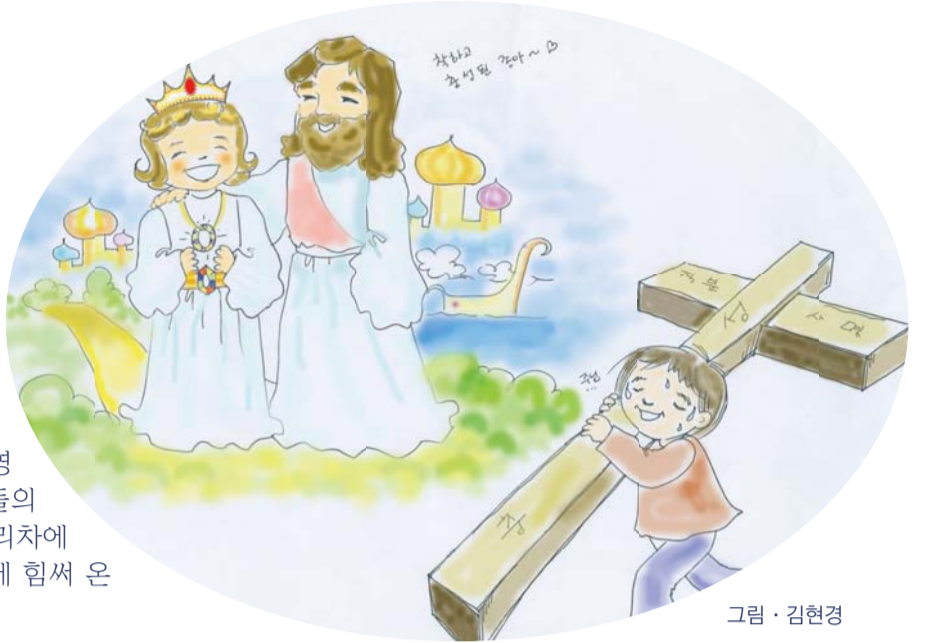


그림 · 김현경

Interview 임직자 스토리



“아들의 팬이기 전에
주님의 소중한 양 떼죠”

장덕분 권사(1대대 9교구)

Q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10년 전, 남편(이강현 집사)이 먼저 만민중앙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 나왔는데 말씀도 좋고, 예배 전 준비 찬양과 특송이 감동스러웠어요. 당시 장애 1급 1호로 휠체어 타고 다니던 김윤섭 집사님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고 큰 믿음이 되었지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남편이 심한 안구건조증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방한 칸에 네 식구가 살 때도 있었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온 가족이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행복해요.

남편의 안구건조증은 무안 단물(출 15:25)과 당회장님의 예배 때마다 해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로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Q 아들 은혁 군의 팬 관리를 직접 하신다죠?

혁재가 슈퍼주니어의 은혁이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아들의 팬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치면 아들을 보기 위해 교회에 찾아온 몇 명의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믿음을 심어준 것이 시작이었지요.

혁재를 보고 등록한 팬들이 지금까지 20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의 생일이면 축하 문자를 보내 주고 주중에는 직접 찾아가 심방해 복음을 전하지요. 때론 가정상담, 진로 상담까지 합니다. 하루 100여 통의 문자가 와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답장을 보냅니다. 아들의 팬이기 전에 주님의 소중한 양 떼이니깐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잘 적응해 교회 일꾼이 되어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마 성도를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갈무리하면서 제 마음도 커지는 걸 느낍니다.

Q 앞으로의 다짐은?

권사 직분받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할 것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즘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다닐 때에 아무도 그 발소리를 듣지 못한 주님처럼 주의 교양으로 다듬어진 영육간에 아름다운 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크고 소중한 직분이니깐요.

Q 큰 변화의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1993년 11월, 당회장님의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간증수기와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은혜받고 등록했습니다. 다음 해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먹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임하는 환상을 보았지요. 그 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경위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마치 제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져 세상과 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98년 12월 23일, 제 일생일대의 사건이 발생했지요. 조계사 시위 진압 도중 고가 사다리차에서 15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다른 대원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저는 거의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지요. 땅에 떨어질 때에 커다란 손이 제 몸을 살포시 떠받쳐 준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제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전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기억에 남는 분은?

일을 하다보면 만취한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정신 분열증 환자 등 다양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제 자신을 발견해 변화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같이 추하고 가시밭 같은 사

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 해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강도, 살인범 등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때로는 유치장에 들어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도 했지요.

특히 사찰 주지였다가 개종한 이동선 집사님, 도박에 빠져 빛에 허덕이다 삶을 포기하려 한 박기욱 집사님, 결혼 11년 만에 당회장님 기도로 잉태의 축복받은 동료 김수성도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앞으로의 다짐은?

제게 믿음과 천국 소망을 심어준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장로의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육간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당회장님께서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제 생활과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활과 얼굴을
최고의 전도지로
만들겠습니다”

전중익 장로(2대대 12-1교구)

